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7 세광교회 단기선교

일시: 2017 년 2 월 20 일-24 일 (월-금)
장소: 혼두라스 램피라 지역의 라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사역: 의료 및 전도, 어린이 사역

혼두라스 Paint Date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후원해주신 분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 월 25 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Kids age(3-12) \$31

- PCA(미국장로교) 한인동북노회 정기노회를 우리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3 월 14 일(화) 오전 10 - 오후 5 시에 세광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 춘계 부흥사경회

일시: 3 월 13 일(금) - 4 월 2 일(주)
강사: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

2017 년 2 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이현주 집사/시편 119:33-40
이번 주 친교: 김은영/윤정호 집사
다음 주 친교: 강승연/이현주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반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2월 19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10 장(통 34 장)
다함께
“전능 왕 오셔서”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19:1-8
이승택 집사 찬양(Choir)
“아멘”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1:1-10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2. 5. 주일설교 요약

헛되지 않겠네 (행 20:24; 갈 4:19)

갈라디아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첫번째 편지로 여겨집니다. “달려갈 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한 전도자 바울의 초심을 엿볼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상당히 급박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위험을 모르고 불길 속으로 달려가는 아이에게 소리치는 심정입니다. 첫 선교여행지였던 갈라디아에서의 복음 사역이 헛되게 끝날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바울이 감지한 “다른 복음,” 즉 헛된 복음의 위험을 살펴 봄으로, 복음을 듣고 믿어 시작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세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그렇게 사는 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사람 따라가 가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헛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접한 것도, 사도가 된 것도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전도자의 사명도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논리에 맘이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외면적인 행위로 자격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별것 아니고 이해할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을 헛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차치하면 사람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게 여겨집니다. 소용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하나님에 원망스럽고 심지어는 안계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은 사람 앞에 행하는 일이 헛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앞뒤가 다르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그의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하십니다(말 3:16).

은혜를 모르고 우리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면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믿음으로만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헛된 것이 - 아무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자가 없었습니다 - 드러났는데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라면, 예수 믿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다시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는 헛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원을 따라, 그가 가르쳐주시는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던 거짓 교사들은 거룩하고 고상해 보였지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심은 삶은 헛될 뿐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열매가 있고 때가 되면 이롭니다.

우리의 구원은 헛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일이고 전적인 은혜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적어낸 기도제목들이,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가, 거룩을 위한 싸움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인내의 기도와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붙잡아 이렇게 결코 헛되지 않게 부르신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음 주일(2/19) 설교: “믿음의 이력” (갈 1:11-24)